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재단법인 청관장학회·청석장학회

제 193 호

2017년 8월 11일

발행인 : 이 규 택

편집인 : 이 창 득

Home page :

www.snueaa.or.kr

E-mail :

snueaa@hanmail.net

(우)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충정로 3가, 피어리스 아파트) 전화 : (02)720-8116, 8120 FAX : (02)720-8117



2017. 4.22일
동문친선등반대회



변주선(영어 60)
전 동창회장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참석

추계역사문화탐방 예정지
: 대청호 갈대테크길



5월 유감(五月遺憾)

이 준 순 (국어 71)
본회 동창회홍보부회장
전 서울학생교육원 원장

내가 35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접고 백수가 된 지 어언 2년이 되었다. 명예퇴직 후 1년은 기억을 더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쏠살같이 지나갔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정말 실감났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달력을 좀 유심히 살펴보았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은 이름 그대로 정말 활기가 넘쳤다. 어찌된 영문인지 1년 열두 달 중 5월에는 국경일은 없지만 기념일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1일 근로자의 날부터 31일 바다의 날까지 무려 17개의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었다. 불쑥 끼어든 대통령선거일까지 포함하면 18개다. 1년 열두 달 중 가장 화려하다. 8일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어버이날이다.



버스터미널이나 역사는 행락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명절 때나 볼 수 있던 그런 진풍경들이고, 시위대가 몰려 있는 서울광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게다가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던 많은 처녀 총각들이 지금까지의 생활태도와는 다르게 오랜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짝꿍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너나없이 결혼을 서두른다. 그래서 5월의 예식장은 통 예약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룬다. 그래서 그런지 계절의 여왕인 5월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특권을 부여받은 커플이라는 생각이 든다.

5월은 봄의 끝자락에서 본격적으로 여름 기운이 배어들기 시작하는 달이다. 그런데 금년 5월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5월 전국 평균기온은 18.6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했다. 금년 5월의 평균 최고기온은 25.1도로 관측 이래 최고였던 1978년 5월의 평균 최고기온 25.3도에 버금갔다. 한반도 부근 고기압의 영향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였고,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5월은 절기상으로 보면 여름으로 들어서는 길목이다. 5월에는 24절기 중 7번째인 입하(立夏)와 8번째인 소만(小滿)이 있다. 입하는 푸르름이 온통 산과 강을 뒤덮어 여름이 다가옴을 알리는 절기로 농사일이 좀 더 바빠질 때. 소만은 만물이 점차 자라서 세상을 가득 메운다는 뜻이 있다. 가을보리를 거두고 이른 모내기를 하며 밭농사의 김매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다.

농부의 손이 바빠지는 것에 발맞추어 5월 주말은 전국 산야를 찾는 행락객들 차량으로 모든 도로가 답답하기 그지없다. 자신감 있게 명함을 내밀만한 소위 명소를 찾아 떠나는 차량으로 도로는 몸살을 앓는다. 모든 도로가 대형 주차장을 보는 듯 차량대열이 꼬리를 물고 줄을 잇는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에 주례로 초대받은 결혼식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말은 최소화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 짝이 되어 행복의 문을 열고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떠나는 신랑 신부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 주었다. 행복은 소유와는 비례하고 욕망과는 반비례한다는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의 행복 공식을 인용했다. 욕망이 작아야 그만큼 행복은 커지며, 그 욕망을 줄이는 첩경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된다고 일러주었다. 다른 사람의 컵과 비교하지 말고, 내 컵만을 바라보며 내 용물이 얼마 남지 않은 컵을 보면서 낙담도 푸념도 하지 말고 그냥 남아 있음에 감사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행복한 오늘을 사는 지혜임을 일러 주었다.



이어서 가정의 달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끝까지 잘 간직하며 살아달라고 강조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핑계만 대다 보면 분명히 때 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고 은근히 겁도 주면서 지금부터 11년 전인 2006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TV드라마까지 들먹였다. KBS 2TV에서 80부작으로 방영한 인기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가 바로 그것이다. 극중 나양팔 하사의 장모인 남달구역을 맡았던 나문희 씨의 극중 대사를 듣기 위해 이 드라마를 꼭 보았다는 그런 시청자가 있었다. 그 대사는 바로 ‘있을 때 잘혀, 후회하지 말고’이다. 그 시청자가 이 대사를 중시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 생각해 보라고 했다.

효를 실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나는 주례를 집전하러 가는 길에 지하철 통로에 있는 행복서점에 들러 신랑 신부에게 줄 책을 똑 같은 걸로 두 권을 구매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수필집이다. 대다수 자식들이 부모님 생전에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한 쉽고도 어려운 4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에세이집이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꼭 한번 읽어 보고 앞으로 어찌 해야 할 것인지 둘이 잘 협의하여 방향을 설정하라고 신랑 신부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효를 강조하다 보니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생각한다. 장차 한국문화가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라고 한 그의 말 때문이다. 그렇다. 가장 한국적인 사상이 우리의 효사상이 가장 세계적인 사상이다. 실제로 효사상은 오늘의 세계가 상실한 가치, 그

래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소중한 가치들이 담겨 있다. 효사상 속에는 인본주의, 이타주의, 인내주의, 절충주의, 평화공존주의의 정신이 응축되어 있다. 우리는 이 효사상을 지금 위기에 처한 현대문명 앞에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상이 민족주의 차원을 넘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사상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위대한 효사상이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는 물론 인류를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불씨가 더 사그라지기 전에 다시 거센 불길로 활활 지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사상운동으로 연결되는 역사적 대과업이 되었으면 한다.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 모습이 떠오른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자식 노릇을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말에 너무도 인색했던 지난날들이 후회스럽다. 이제는 안타깝게 뵈 수 없는, 자애롭게 웃으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마냥 그리워진다. 그러나 그리움으로 남을 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럴수록 부모님께서 연어의 심정으로 베풀어 주셨던 푸근한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린다. 활기가 넘치는 5월이 훌쩍 지나갔다. 그러나 5월이 1년 열두 달 중 가장 환희가 넘치는 계절의 여왕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몇 년 정도는 5월을 계속 지켜봐야 진정 축제의 달인지, 그냥 마음만 조급하여 부산만 떠는 달인지를 올바르게 가늠할 것 같다. 내년 5월이 성급하게 기다려진다.

會長 動靜 (2017. 4. 1 ~ 6. 30)

- 4. 18 제3차 동창회 이사회 주관
- 4. 22 동문친선등반대회 개최
- 5. 10 사범대학 스승의 날 행사 참석
- 5. 31 제4차 동창회 이사회 주관
제3차 청관장학회 이사회 주관
제2차 청석장학회 이사회 참석

동창회 來訪 人士 (2017. 4. 1 ~ 6. 30)

- 강의정(영어 61) 전 여의도고 교장, 청석장학회 이사장
본회 감사, 강남구청교육발전자문위원,
- 김범기(물리 66) 전 한국교원대 대학원장
본회 문화전략부 부회장

- 성기훈(체육 71) 서울교대 교수,
체육교육과 동문회장
- 신정숙(화학 67) 전 세종고 교장,
본회 창조기획부 부회장
- 이규석(지학 66) 전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늘푸른포럼 회장, 본회 대외협력부 부회장
- 이병석(수학 65) 전 (주)트라이디커뮤니케이션 대표
본회 사업부 부회장
- 이준순(국어 76) 전 서울학생교육원장, 본회 홍보부 부회장,
대한민국미래교육연구원 원장
- 임동호(교육 61) 전 사학연금 상무,
본회 총무부 부회장
- 최기숙(체육 65) 전 자양고 교장,
본회 여성부 부회장
- 최안기(지리 70) 전 용산고 교장,
본회 창조기획부 이사

■ 제3차 동창회 이사회 개최(4.18)

지난 4월 18일(화) 오전 11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동창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남동 동창회관 임대료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임차인이 사드의 영향으로 음식점 영업이 몇달간 부진을 면치 못해 4월 13일 임대료 하향과 5년에서 2년으로 임차기간 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사회에서 5월부터 12월말까지 임시로 임대료를 12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주고, 임차기간은 5년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임대료 임시 하향 조정으로 동창회관의 예산 중 장기차입금상환액도 50백만원에서 34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동창회관 지하실 천정 누수문제도 5백~7백정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하기로 의결하였다.

■ 2017년 동문친선등반대회 개최(4.22)



지난 4월 22일(토) 오전 10시 모교 버들골 노천강당에서 동문친선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봄철임에도 이날만큼은 동문들의 모임을 축하하듯 날씨는 화창하고 공기도 맑고 깨끗한 봄 날씨였다. 10시부터 이규택 회장을 비롯하여 사범대학 김찬중 학장, 신정엽 부학장 등 100여명의 동문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서로 악수를 하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산행은 캠퍼스 투어코스, 캠퍼스 투어와 가벼운 등산코스, 관악산 중간까지의 등산코스 등 각자의 체력에 맞게 3갈래의 코스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산행 후 반가운 동문들과 함께 한 씬밥도시락은 더욱 맛있는 점심이 되었고 변주선(영어 60) 전 동창회장이 준비해 준 오렌지 후식을 먹으며 오랜만의 정겨운 여담을 나누었다. 점심 후에 간단한 여흥으로 과별 소개와 동문 인사가 있었다. 특히나 대회 후의 깔끔한 뒤처리하는 사범대인으로서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금년 대회에서는 윤리교육과에서 박성춘(90) 동문이 처음으로 참석하여 모든 동문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번 대회도 참가 동문들이 즐겁게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내년에는 젊은 동문의 참여를 독려하여 더욱 활성화하자는 다짐을 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다.

■ 제4차 동창회 이사회 개최(5.31)

지난 5월 31일 11시 30분 동창회 회의실에서 동창회 산하 2개 장학회와 동창회 이사회가 연석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연남동 동창회관의 새로운 임대료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기존 임차인의 음식점업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되어 법인체인 '마을과 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과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 협의하였다.(이하 '마을과 집') '마을과 집'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 청년들에게 고시원보다 2배 정도 넓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정도를 받는 사회주택 보급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가 사업자와 건물을 심사, 선정하며 최대 2억원까지 시설비를 무상 지원한다. 또한 사업기간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입주자의 자격심사도 SH와 공동으로 하며 사업자 사후 관리도 하는 공익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업이다. 최근의 임대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임대계약을 계약기간 10년, 월임대료 10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2년마다 양자협의 조정조건, 임대료는 8월 1일부터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부가조건으로 사업내용에 맞는 건물 리모델링시 건물주로서 협조하기로 하였다. 기존 임대인의 임대료는 현재 폐업상태로 2달째 임대료 미납으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7월 20일 임대보증금 잔금 수납시 5월분까지 임대료 및 임대관련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청석장학회에서 동창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함께 사용하는 안건과 추계역사문화탐방 일자를 9월 23일~24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가정과 홈커밍데이와 겹쳐 11월 4일~5일로 변경하고 장소는 주무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제4차 청관장학회 이사회 및 제2차 청석장학회 개최

지난 5월 31일 11시 30분 개최한 이사회에서 바비엡Ⅱ차 관련 임대관련 보고가 있었다. 4월 6일 (주)세안텍스와 위탁관리계약 체결 후, 객실점검과 보수기간을 제외한 실제 객실판매기간에 해당하는 보름치 정도의 4월분 임대료가 지난 5월 10일 입금되었다. 입금된 임대료는 6개월 분납하기로 한 침대 및 시트 교체비, 객실수선비는 제외하고 869천원으로 미납관리비 3월분 716천원을 먼저 납부하였다. 7월분 임대료까지는 그간 미납된 관리비를 우선적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현재 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용도변경은 계속 지켜보며 협조하기로 하였다. 청석장학회에서는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기본재산의 운영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기본재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3년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청주교육지원청에 신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반세기전 동창회의 낙수(落穗)

정 완 호 (생물 58)
전 한국교원대 총장

필자는 1958년 입학하여 4학년 때 5.16을 맞았다. 시대 흐름에 따라 그 해 4학년 1학기를 끝내고 8월에 복무기간이 짧은 대학생 위주의 학보병으로 입대했다. 1년 6개월 복무를 끝내고 1963년 2월 제대하여 1963년 8월 졸업을 했다. 9월에 생물교육과 최기철 교수님께서 사범대학 동창회 일 좀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다. 경성사범학교를 나오신 선생님께서 당시 사범대학 동창회장을 맡고 계셨다.



사범대학 전신으로 일제 강점하의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있었는데 8.15해방이 되면서 두 학교를 합쳐서 194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개교하였다. 사범대학 제 2,3,4회 동창회장을 지내신 한성수 선생님은 대법관을 지내셨는데 그 당시 경성사범학교는 수재들이 거쳐 가는 길목이었다. 2017년 6월 15일자 조선일보 A2면에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저명한 칼럼니스트 선우휘는 경성사범학교를 나왔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국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출발한 것이 일천하니까 그 때까지 모두 경성사범학교 출신이 사범대학 동창회장을 하고 계셨다. 경성사범학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2010년대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문리과대학 사학과와 이태진교수가 주축이 되어 '서울대총동창신문'에 서울대학교의 개학(開學)에 관한 주제가 여러 차례 많은 논의 끝에 뿌리를 찾은 것이 경성사범학교와 법학전문대학교가 최초로 1895년 같은 해에 설립이 되어 우리 서울대학교의 "개학(開學)은 1895년, 개교(開校)는 1945년"으로 확정된 바 있다. 그 뿌리인 두 학교 중 하나가 경성사범학교라는 이야기이다.

1963년 당시 동창회장에 최기철 교수님(생물), 조직부장에 박한식 교수님(수학), 사업부장에 이웅백 교수님(국어)이 수고하셨다. 조직부장이 동창회 명부작성, 동창회비 징수 등 동창회의 주된 일을 하는데 본인이 박한식 조직부장님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학부생은 4학년 졸업할 때에 모든 학생이 동창회비를 내야 했다. 선생님의 동창회 운영 철학을 보면서 박한식 교수님 같은 분이 경제기획원 장관을 하시면 '틀림없이 국가의 경제가 나날이 윤택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당시 나는 생각했었다. 선생님께서 경제적인 낭비 없이 철저히 살림을 잘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1963년부터 첫 번째 내가 부딪치며 했던 일이 동창회 명부 작성이었다. 전 동창회원 수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동창회 명부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정을 내리셨

다. 그렇게 작은 크기로 만들더라도 명부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할 뿐 아니라 쉽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1960년대는 보리 고개에서 경제개발이 시작하는 초기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았다.

중요한 안건은 동창회 이사회를 통하여 여러 번 토론을 거쳤다. 그 대표적인 예가 8.15 해방을 거쳐 6.25 전쟁을 지나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동문들을 동창회 명부에 넣는 안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선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사회교육과 4회의 김기수 부회장님이었다.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졸업은 못했지만 동창회 명부에 새로 등재하기로 결정된 동문은 사회교육과 4회의 김종필 동문과 같은 사회교육과 4회의 김용태 동문 그리고 교육과 2회의 양순직 동문 등 세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 세 명의 선생님을 포함하여 당선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보부장관으로 임명된 영어교육과의 김동성 교수님까지 동창회에서 축하 모임을 그 해 12월 어느 날 서울 의대 구내식당인 함춘원에서 가졌다. 그 날 모임에서 여러 국회의원 중에서도 모교 졸업장은 없어도 특별히 동창회 명부에 넣도록 결정된 세 명의 선생님께서서는 힘이 꿈틀거리는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축하 모임이 화기애애하게 무르익어 갈 때, 어느 국회의원 선생님께서 명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영어교육과 2회 졸업생인 김동성 교수님께 정중히 피아노 연주를 부탁을 하였다. 그랬더니 김동성 피아니스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피아노 앞에 앉더니 얼굴은 앞을 향한 채 양손으로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열정적으로 치는 것이 아닌가! 공보부 장관이면서 교수이신 김동성 피아니스트의 그 멋지고 우아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이웅백 교수님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하여 가정과 2학년 학생 십여 명이 그 날 동창회 축하연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즐거운 모습으로 협조해 주어서 그 축하회 모임은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 1967년 말에 김종필 동문은 장학금 200만원을 회사하였고, 1971년 동창회 임원명단을 보면 김종필, 김용태 동문은 고문으로, 양순직 동문은 지도위원으로 추대되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나

-프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노재봉 (국어 59)
수필가, 전 자양고 교장

나는 살아오면서 모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1964년 세광고등학교에 부임하여 38년 동안 봉직하고 2001년 8월 자양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산 데는 모교의 덕이 컸던 것 같다.



프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을 환자에게 주었는데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가짜 약의 효과’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믿음에 기인하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서울 사대 졸업은 나에게 프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가 있는 것 같다. 대학에 다닐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울대 출신이라는 의식이 긍정적인 자존감(自尊心 self-esteem)을 갖게 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대학교에 다닐 때도 시골서 올라온 보잘 것 없는 촌뜨기였지만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고 사범대학 배지를 달면 남에게 켜이지 않고 당당했다. 비록 3년 반이나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남에게 나서기를 꺼리는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집안 사람이나 친구들과 당당하게 어울리면서 지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은 것도 서울사대를 나왔기에 가능했다. '63년 봄에 사범대학 국어과를 졸업하고 충북에 배정을 받았는데 충북 교육위원회에 와 보니 공주사대 국어과 졸업생이 10여 명이나 배정되고 서울사대는 나 혼자였다. 고향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있는데, 단양과 옥천으로 두 번 발령을 받았으나 강사 자리이고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편찮으셔서 부임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발령에서 제외되었다.

다음 해 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어 나는 삼년상이나 모신 뒤에 취직하기로 작정하고 서투른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모르는 분이 취직 건으로 상의하고자 하니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다. 취직이 어려운 때라 반신반의(半

信半疑)하며 청주 탑동으로 찾아가니 그 분이 대학 6년 선배이신 신경순 선생님이었다. 세광고에서 2년간 근무했는데 공립학교인 청주중학교로 가게 되었고,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 같은 좋은 후임을 소개하고 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교육위원회에 가 보니 국어과 배정자는 모두 공주사대 출신인데 서울사대 후배는 나뿐이어서 내가 미원에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연락을 한 것이다. 그런 인연으로 나는 1964년 4월 20일 청주에 있는 사립학교인 세광고등학교에 부임했다.

군에 입대해서도 두 번 모교의 혜택을 받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1963년 4월 17일 육군에 지원 입대했다. 수용연대에서 위생병과를 받고 입대 4개월 만에 정기휴가 기회를 얻는 등 나의 군 생활은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다.

육군에 지원하여 밤 늦게 논산 수용연대에 도착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침상에 앉아 있는데 병장 계급장을 단 군인이 와서 우리를 훑어보더니 나를 손으로 가리키며 “키 큰 놈 앞으로 나와.”라고 했다. 나는 긴장하여 침상 앞으로 나갔다. 4년간 입어서 다 헤어진 교복 상의를 입고 갔는데 그는 내 교복을 보고, 서울대학교에 다녔느냐며 이것저것 묻더니 옆에 있는 자기 막사로 따라오라고 했다. 지금 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지만 바로 나와 대학 동기생의 형이었다. 그는 위생병과를 받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다.

마산에 있는 군의학교를 마치고 양구 동면에 있는 21사단 의무중대로 배속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R.O.T.C.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한 대학교 동기를 만나 매우 반가웠다. 한 달쯤 지나서 그는 저녁에 나와 함께 중대장 집으로 찾아가 나의 휴가를 간청하여 나는 뜻밖에 20일간의 휴가를 얻어 집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년퇴임한 지도 16년이 지났지만 유유자적하며 한가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계간지 ‘생활문학’주간을 맡아 편집 일을 하고 있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서울 사대 졸업이라는 프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가 아닌가 한다.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술연구교류 협약식



지난 4월 4일(화) 경기외고에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교육경쟁력 강화와 훌륭한 교육자 및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고 교육봉사 및 교수학습법 개선을 통해 교육봉사 및 교수학습법 개발 등을 위한 학술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사범대학은 교육봉사와 멘토링 지원,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등의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태국 람바이바르니라차팻대학교 교수진 33명 사범대학 방문



지난 4월 5일(수) 태국 람바이바르니라차팻대학교(Rambhai Barnni Rajabhat University(RBRU)) 교수진 33명이에 사범대학을 방문하였다. 물리교육과 유준희 교수는 '한국의 예비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RBRU의 Yaowares Chaiyen 부학장은 '태국의 교사 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지구과학교육과 사냐 마틴 교수의 사회로 교사 교육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이후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지난 4월 21일(금) 모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교육실습학생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외빈특강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사의 자세"를 주제로 이기성 부설고등학교 교장의 특강과 중등교육실습, 초등교육실습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난 5월 10일(수)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스승의 날 사은행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학과장들이 명예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을 달아 드린 후 사범대학 학과 대표학생들이 학과장님께 꽃을 달아드렸다. 또한 학생들은 감사의 의미로 스승의 은혜 제창과 서울대 동문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찬을 접대하였다.

■ 2017학년도 하계 교수학사협의회



지난 6월19일(월)~20일(화) 1박2일로 강원도 고성에서 '17년도 하계 교수학사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학장단 및 교수 50여 명이 참석하여 학장단 보고 및 부설 연구소 보고 등 업무실적 보고와 사범대학 업무계획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교육학과

◆ 동문회 홈커밍 및 등산대회 개최



교육학과 동문회가 주최하는 '2017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동문가족 홈커밍 및 등산대회' 행사가 지난 5월 5일(금)에 모교 기숙사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어린이날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교육학과 동문회 홈커밍 및 등산대회는 1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연례행사로, 동문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식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이다. 올해에도 학과 교수 및 각계 각층의 동문, 대학원생 및 학부생에 이르기까지 7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국어교육과

◆ 2017학년도 국어교육과 정기 학술답사



지난 5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 간 충청북도 옥천, 영동 일대에서 학부 3학년 및 대학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정기 학술답사가 진행되었다. 정지용 생가, 영동국악체험촌 등을 돌아보았고, 옥천중학교, 영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현황, 언어실태, 생활문화에 관한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방 중고등학교를 찾아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 조사 활동뿐 아니라 학습 멘토링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은,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영동국악체험촌에 방문하여 난계 박연의 음악 세계를 체험하며 전통 문화의 국어교육적 계승 방안도 모색하였다. 이번 답사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가하여 국어교육의 현실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17-3차 언어인성포럼 개최



국어교육과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17년도 제3차 언어인성포럼'이 6월 15일(목) 16:00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두근두근, 그 설렘과 떨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홍태식(67, 유라시아 문화포럼 이사장)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정재찬(79, 한양대 교수) 동문의 주제 발표와 남민우(9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송여주(안산호평중학교 교사) 동문의 토론, 오랜 경륜을 가진 청중들과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문학적 언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현대사회에서 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감이 이루어졌다.

영어교육과

◆ 영어교육과 포럼 개최



지난 4월 15일(토)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영어교육과 포럼이 개최되었다. 황적륜 동문(54, 모교 명예교수)을 비롯해 17명이 참석한 조찬 포럼에서 이성호 동문(58, 전 한양대 부총장)이 'Response to the Literary Text'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며 참석한 동문들 간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4년간 경인교대 총장직을 수행하고 이임한 이재희 동문(74)에게 기념 화환을 증정했다. 영어교육과 포럼은 주제를 영문학/영어학/영어교육 분야와 타 분야의 두 분야로 나누어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영어교육과 동문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 춘계야유회 개최

지난 5월 27일(토) 서울대학교 풍산마당 및 호암교수회관에서 영어교육과 춘계야유회가 열렸다. 변주선 동문(60회)을 비롯한 12명이 참석한 야유회에서는 풍산마당 뒤쪽의 관악산 지역에서 하이킹을 한 후, 호암교수회관에서 뒤편이를 진행하였다. 뒤편이 자리에서는 향후 영어교육과 동문회의 활성화 방안과 영어교육과 포럼 개최 계획, 그리고 영어교육과 재학생 동문들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개진하고 정담을 나눴다.

■ 사회교육과

◆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사회교육과 동문회(회장: 김경희, 74)는 지난 1월 16일(월)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동문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모경

환 교수(81, 학과장)의 모교 동정 보고가 있었다. 곧이어 진행된 신년하례회에서는 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가 행해졌고, 은사님에 대한 선물 증정이 이어졌다. 특히 많은 선배들의 환영 속에 새롭게 동문회에 가입한 신입 회원에 대한 소개 및 인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동문들은 준비된 만찬을 들면서, 삼삼오오 모여 동문들 간에 우의를 다지는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체육교육과

◆ '2017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에서 큰 성과



영국 대학평가기관 QS가 최근 '2017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를 발표했다. 각 학문 분야별로 46개 학과에 대해 세계대학 순위를 매긴 이번 평가에서 모교 31개 학과가 50위 내에 랭크되었으며, 특히 체육교육과는 스포츠관련학에서 세계 7위에 오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추계문화탐방 일자 변경 안내

- 일 시 : 2017년 11월 4일(토) ~ 11월 5일(일) <1박2일>
- 장 소 : 유성, 대청호, 대둔산 케이블카, 공주, 아산외
- 숙 소 : 유성
- 회 비 : 140,000원 예정
입금계좌 ▶ 하나은행 221-910158-88607(예금주: 이규택)
- 신 청 : 80명 모집 (10월 13일까지 신청)
TEL. (02) 720-8116, 8120 / FAX. (02) 720-8117

이 會報는 천재교육 崔容準(數 · 61入)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러 120여개 소수민족 중 러시아 당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려인은 이곳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그 고유한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려인들끼리 혼인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장례, 제사 등의 한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유지시켜 왔으며, 구정, 단오, 추석 등 민족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한국의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모국어의 활용도가 낮아 한국어 구사 능력은 부족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며, 평소에 자신을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한국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편이다. 남부 러시아 지역으로의 이주 사유와 경로는 다양하지만, 출신 지역을 넘어서 강한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남부지역 각지에 삶의 터전을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 사회에도 러시아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한 심상치 않은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로스토프주의 농업경영 환경의 변화이다. 농지 임대료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 농업기술의 담보, 소규모 농업경영에 따른 농산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의 증가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차 커져 가고 있다.

둘째, 최근 가속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어려움으로 운영비 부족 등으로 고려인협회(AKPO)의 운영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고려인협회의 위상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 고려인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²⁾

셋째, 소비 위축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시장에서 의류, 신

발 등 생활필수품을 취급하여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하였던 많은 고려인 자영상인들의 몰락이 점증하고 있다. 최근 로스토프나도누 시의 북쪽 시장(찌메르니히)에 있던 많은 고려인 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³⁾

넷째, 2001년에 설립된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의 역할 축소이다. 2016년도에 이르러 러시아 당국의 방침에 따라 활동 영역이 축소되고, 교육원장이 현지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현지 동포와의 접촉,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워져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적 어려움과 고려인협회(AKRO) 활동의 위축이 지속된다면 남부 고려인 사회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러시아 남부지역의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려인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60여만km²에 이르는 러시아 남부연방 및 카프카즈 연방 지역 곳곳에 살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고려인협회(AKPO)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지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러시아 당국의 신임을 받고 있는 고려인협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선진농업기술의 전수,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으로의 유학 확대 등 청년 고려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남부 러시아 지역 고려인 사회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심 및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2) 2016년 7월 말에 현지를 방문하였을 때, 고려협회장 및 영향력있는 고려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3) 2016년 8월 현지에서 진행한 인터뷰 대상자 모두가 언급하였고, 고려인협회 회장, 현지에서 만난 다수의 고려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고려인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다.



▲ 러시아 로스토프주 위치도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교육과에 재학중인 14학번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뜻 깊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의 경우는 졸업을 앞둔 4학년 1학기에 받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게다가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기에 이 장학금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한없이 어리고 부족한 제가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지난 대학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자’가 제 목표였기에 대학 진학시에 사범대학에 오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선후배들이 제게 ‘엄마’라는 별명을 붙여 줄 만큼 주변에 애정 어린 관심을 주려고 하는 저의 성향에 ‘교사’라는 직업이 알맞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정해진 틀 안에서 생활하며 학생이라는 시각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과 실제 직업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대학에 와서는 많은 것을 공부하고 경험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스스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찾아 온 것처럼 저의 노력으로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만큼 소중했던 경험은 ‘H-Jump Schoo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라매지역아동센터에서 1년간 교육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믿고 의지하며 잘 따라와 준 학생이 고등학교 때 뛰어난 성적을 받고 ‘선생님 덕분에 이예요’라고 말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연락을 이어가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학생이 저로 인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을 덜어준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의 경험 외에도 제게 교직에 나갈 확신을 주었던 것은 교직수업인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라는 것과 전공수업인 ‘탐구학습과 생물실험지도’를 수강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교실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 중의 하나인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던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을 수강하였을 때였습니다. 교사가 역동적인 학급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이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 교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를 배우며 교사라는 직업에 더욱 애정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만 배워왔던 교육모형을 실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탐구학습과 생물실험지도’ 수업이었습니다. 위의 두 수업에서 저는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 저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제가 확신한 길인 교사가 되는 데에 올 한 해가 중요한 만큼, 이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학에 진학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등록금을 비롯한 학비를 스스로 부담하려 해왔습니다. 과외 등의 활동으로 돈을 모아 학비를 내거나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분할 납부라는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스스로 조달하려 하면 그만큼 학업에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를 뺏긴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어 교생실습을 나가는 학기에 좀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라는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교생을 나가는 것에 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걱정 없이 교생실습에 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듯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상호 작용하며 학급을 지도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기에는 한 달도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학생들과 하는 소중한 시간에 매진하고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될지 더욱 더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제게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더 나아가 좋은 교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졸업 전에 이런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지난 대학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 지금 장학금을 통해 받은 따뜻한 지지를 후배들과 제가 가르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며, 조금 길어진 편지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2월 17일

생물교육과 14학번 이 소 민 올림



김창대(교육 79, 모교 교육학과 교수)
동문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에서 <상담학 들어가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웹 기반으로 개발된 이 강좌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상담이론을 설명하고, 상담실제와 새로운 연구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는다. 이 강좌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차로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도 2차적으로 2017년 5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13주에 걸쳐 강좌를 진행하였다.



김동일(교육 83, 모교 교육학과 교수)
동문이 올해 7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김동문은 한국교육심리학회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유성상(교육 90, 모교 교육학과 교수)
동문이 지난 4월 <Prize: 교육이 미래라고 믿는 당신에게>(역서, Dale Russakoff 저)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2009년 말부터 2015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진행된 뉴욕 교육 개혁의 과정과 실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남조(국어 47, 시인) 동문이 지난 4월 제 29회 정지용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시계」로 인생과 생명에 대한 깊은 사유와 고뇌를 잘 형상화했고 작품성이 뛰어났다고 평한다. 김 동문은 한국 시단 현역 최고령 원로시인이며 정지용 문학상은 시인 정지용의 문학적 성과와 문학사적 위치를 기리기 위해 1989년 시와 시학사에서 제정한 문학상이다.



전영우(국어 53, 전 KBS 아나운서 실장) 동문이 30여년간 아나운서 생활과 대학교수를 마무리하여 내놓은 자서전 「화법에 대하여」를 출간하였다. 우리나라 스피치 이론을 창시, 발전시킨 스피치전문가로서 우리나라에 화법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자

리잡았는지에 대한 기록서이자 말을 사랑했던 한 인물에 대한 자전적 회고록이다.



이상우(국어 61, 명지대 명예교수) 동문이 「소설에 이르는 길」을 출간하였다. 책의 구성은 1부 「소설의 이해와 기법」, 2부 「소설에 이르는 길」, 「3부는 소설과 삶의 뒷안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동문은 작가가 작품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위해 인물, 주제, 플롯, 배경, 시점 등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익히기보다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보아 현대의 다양한 소설들을 읽을 수 있도록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이론을 정리하였다.



이준순(국어 71, 전 서울학생교육원장) 동문이 지난 4월 '월간 문예사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4년이며 이 동문은 현재 대한민국미래교육연구원 원장이다.



변주선(영어 60, 현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 동문이 지난 6월 23일~25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방문단장 자격으로 미국 Boston Hilton에서 개최된 서울대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미주 동창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동문들께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며 축사로 격려하였다. 변동문은 본회 35대~37대 동창회장을 역임하며 동창회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김경희(사회74, 성신여대 교수) 동문이 지난 3월 한국학교안전학회 창립 학술대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정부와 학계 학교안전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이 학회는 학제 간 융·복합연구와 학계·현장의 유기적 교류를 통해 학교 안전 관련 학술 수준을 높이고,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연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희(지리 54, 소설가) 동문이 「정약용의 여인들」을 출간했다. 이 작품은 다산의 마지막 생애를 휘감은 여인들을 통해 충효와 애민정신으로 박제된 학자 정약용을 피와 살을 가진 보통의 사내로 뜨겁게 되살려냈다. 정약용이라는 인물의 솔직하고도 인간적인 면에 주목해 섬세하고 우아한 문체와 세밀한 묘사로 정약용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최 동문은 제1회 혼불문학상의 수상작 「난설헌」의 작가이기도 하다.



김순오(가정 55, 시인, 전 경기여고 교장) 동문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 나선 내면의식이 드러난 시세계를 보여주는 두 번째 시집 「초록색 고백」을 출간하였다. <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김 동문은 정년을 전후로 평생 동안 가슴속에 묻어 온 자신의 인생행로를 돌아보고 그 의식 세계를 펼쳐 나간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보듯 스스로의 내밀한 의식 세계를 자신만의 특유한 문학의 코드로 펼쳐냈다.



김후란(가정 53,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 동문이 13번째 시집 「고요함의 그늘에서」을 출간했다. 1부 빛을 쏘다, 2부 별들의 노래, 3부 아름다운 대지여, 4부 그리움의 날들, 5부 비움의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시집에 실린 <지는 꽃>으로 서울신문사가 주관하는 제25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했다.



안양옥(체육 75,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동문이 지난 3월 6년여 간 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문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문의 품위를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축하합니다



정현백(역사 71)
여성부 장관



서 훈(교육 76)
국가정보원 원장



심보균(영어 79)
행정자치부 차관



김형연(사회 85)
청와대 법무비서관

원고모집

동창회보에 게재할 동문들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원고주제 : 자유(시, 수상, 여행기, 동호회 활동기, 주변 잡기 등)
- ♥ 원고마감 : 수시
- ♥ 원고매수 : 한글파일 10폰트 A4용지 1장~2장 이내
- ♥ 제 출 처 : 우 편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 (충정로, 피어리스아파트)
E 메일 : snueaa@hanmail.net

공지사항

2015년 11월부터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께 감사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께는 연하장도 발송하고 있사오니 회비를 납부하신 후 주소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해 동창회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회부납부 동문의 연락처가 없어 감사 문자를 드리지 못한 분이 다수 있습니다.
지로용지로 납부하시는 동문님은 여백에 꼭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비 납부안내!

동문간의 교류지원, 친목 도모, 동문간의 동호회 활동 지원, 각과동문회의 활성화와 같은 동창회 일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운영하는 일은 동문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는 동문의 무한한 애정과 응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비의 납부가 튼튼한 동창회의 초석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동창회비를 납부하여 탄탄하게 발전하는 동창회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이규택)

※ 문의처 : 동창회 사무실 Tel. (02)720-8116, 8120

회 장	: 2,000,000원
고 문	: 300,000원
자문위원	: 200,000원
부회장·감사	: 300,000원
이 사	: 50,000원
일 반	: 30,000원
평생회비(1회)	
이 사	: 400,000원
일 반	: 200,000원

회비 납부자 명단

(2017. 04. 01 ~ 06. 30)

평생회비 (20만원)

옹정근(사회 57)	김동한(체육 57)	한경수(교육 58)
이민재(생물 59)	박흥일(영어 60)	연대성(영어 60)

고문 · 임원 · 이사회비

이규석(지학 66)	30만원	최기숙(체육 65)	30만원
이상우(국어 61)	10만원	김영진(교육 51)	5만원
장충식(역사 51)	5만원	김홍우(물리 54)	5만원
구성희(생물 55)	5만원	손종극(영어 55)	5만원
최병호(화학 57)	5만원	김충언(생물 58)	5만원
오성종(역사 58)	5만원	정귀생(국어 58)	5만원
유덕준(교육 60)	5만원	최낙준(생물 61)	5만원
이순권(교육 62)	5만원	최안기(지리 70)	5만원
성기훈(체육 71)	5만원		

박종식(74)	박현수(76)
〈독어〉	
이상경(65)	
〈불어〉	
표진이(66)	함오연(67)
〈역사〉	
박장순(52)	이효건(66)
〈지리〉	
박성호(55)	김용복(57)
국해웅(63)	
〈수학〉	
한상표(56)	정은실(70)
〈물리〉	
김희분(50)	최재진(55)
이기종(56)	우상혁(56)
최돈형(68)	
〈생물〉	
김준호(50)	노두호(51)

최계숙(52)	장일원(53)
윤백중(55)	신명자(56)
곽동순(63)	
〈지구과학〉	
봉정모(72)	
〈체육〉	
신동순(53)	이만형(62)
윤익모(62)	송동수(67)
이완기(73)	
〈가정〉	
이영주(54)	맹혜열(64)
〈성명학과미상 2명〉	



일반회비 (3만원)

〈사예이〉		〈국어〉	
서윤수(48졸)		한원영(49)	황기탁(49)
〈경여사심〉		이병무(50)	이병선(51)
함희동(46졸)		박종대(51)	박정남(53)
〈교육〉		김증자(61)	김수형(61)
안규철(54)	현재복(56)	〈영어〉	
황채호(61)	방재곤(62)	최길순(49)	전래수(52)
이정진(77)		황적륜(54)	김혜원(55)

2017년 동문친선등반대회 찬조

김순오(가정 55)	20만원	이규석(지학 66)	10만원
윤웅섭(수학 61)	10만원	변주선(영어 60)	오렌지 1box
정근화(물리 63)	10만원	문용린(교육 67)	고급스포츠타올 100개

청관장학회 장학금 찬조

허현호(수학 67)	15백만원
------------	-------

♥ 동문님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반송되어 오는 회보는 재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진심입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천재교육의 학습 봉사단.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려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꿈, 천재교육이 응원하겠습니다.

 천재교육

☞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이 환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 어린이학교에서
주 1회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 수업 진행

☞ 착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동행, 천재교육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교재 지원 / 장학금 후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데이터 지원 / 고도 약시를 위한 교과서 및 학습교재 개발